

익산서동축제 성황리 마무리

3~6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막식 진행... 3일간 7만5000여명 방문객 찾아

무왕행차 퍼레이드·각종 체험·먹거리 등... 관람객 편의 증진 축제 '호평'

무왕의 꿈과 찬란한 백제문화의 매력을 담은 '2025 익산서동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익산서동축제는 개막일을 제외한 3일간 7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5 익산서동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함께 장엄한 막을 올렸다.

이어 도심을 무대로 펼쳐진 무왕행차 퍼레이드는 백제 복식을 갖춘 무왕행렬단과 시민 1,000여 명, 전문예술단체가 참여해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재현했다. 특히 몽골 예술 교류단이 처음으로 참여하고, 일본 교류단도 다시 방문해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서동공원 일원에서는 백제 문화체험과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이어져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백제 설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 및 동방 서동을 이겨라 △백제 무왕이 되어라 △백제 옷 입기 등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동익스트림존'에서는 안전 장비를 갖춘 쥘라인 등 안전하고 즐거운 액티비티 체험이 운영됐다.

먹거리 부스는 금미면 주민들이 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익산서동축제는 개막일을 제외한 3일간 7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여해 향토 음식을 선보였으며, 익산 청년단체·창업팀·소상공인들의 다채로운 메뉴로 지역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담아냈다. 이와 함께 별도로 마련된 전용 휴식 공간은 관람객들이 더욱 여유롭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관람객 중심의 운영이 돋보였다. 축제장 내 대형 돛단배와 테이블, 의자가 마련돼 유아 동반 가족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한심존'은 응급처치, 위생용품 제공, 실시간 안내, 분실물 접수, 유아 보호 등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시는 시내권 셔틀버스를 비롯해 미륵사지·왕궁리유적 등 관광지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고, 다화용 용기 사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도 실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동축제는 백제 왕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방문객 중심의 축제였다"며 "무왕의 꿈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트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이리고, 지역 교육 혁신 '맞손'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교육발전특구 연계 위한 업무협약 맺어

익산시와 이리고등학교가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7일 이리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추진과 익산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의 역량을 높여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이리고는 △지역 인재 양성 △진로 탐색 및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이리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계획을 긴밀히 연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주 기반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부시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교육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리고등학교와 함께 지역 중심의 교육 혁신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익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현직교사가 학생들 체계적 진학 전략 짚는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 시작

군산시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관내 현직교사가 참여하는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참여 가능하며,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내 현직교사 8명이 참여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는 상담을 통해 초등학생은 적성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고등학생은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통한 상담으로 체계적인 진학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공공형 진로·진학 컨설팅'은 5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28주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산 시립도서관(수송동)과 금강도서관(조촌동)에서 각각 진행된다.

상담은 저녁 7시부터 상담 장소별 하루 2회 회차당 40분 할 수 있으며학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edugun.org)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다. 상담 시 초등학생은 고등 24에서 제공하는 '초등학생 진로 인식검사 결과지'를 중·고등학생은 커리어넷 '직업적성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반딧불이 복원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

익산시, 구룡마을 대나무숲 일대 '반딧불이 서식처 보존·조성사업' 착수

생태환경도시 익산시가 반딧불이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힌다.

익산시는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금미면 구룡마을 대나무숲 일대를 중심으로, '반딧불이 서식처 보존 및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영화 '최종병기 활'과 드라마 '추노' 등의 촬영지로도 알려졌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경지표종인 '운문산반딧불이(Luciola ummunsana)'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반딧불이의 출현은 해당 지역의 수질, 토

양, 생물다양성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딧불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태 환경 보전은 물론 생태교육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국내 곤충생태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해 정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딱정벌레목 반딧불이과 전문 박사들이 반딧불이 생태조건과 서식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사업의 과학적 기반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반딧불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서식 생태계의 정밀 연구 및 환경 복원을 위해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폐쇄는 최근 대숲 내 훼손된 대나무가 늘어나고, 반딧불이의 주요 먹이인 무척추동물 서식지 검토 필요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구룡마을 일대가 △청정생태 복원지 △환경교육 플랫폼 △야간 생태관광 명소라는 삼박자를 갖춘 생태문화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딧불이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야간 탐방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배달의 명수' 앱
특별 이벤트 실시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배달의 명수' 앱을 통해 주문하면 주사위를 굴려 3,000원~1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을 제공한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주문한 상위 200명에게는 별도로 5,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재단의 박지형 사무국장은 "배달의 명수는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 아무쪼록 배달은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유치 및 홍보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는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배달의 명수' 활성화에 임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군산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9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주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5일간 이어지는 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기간 내에 참여하는 군산 주공시장 대 점포는 13개소이다.

특히 참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해당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장 일자리경제과 ☎063-454-2686, 군산 주공시장 상인회 ☎063-461-0567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